

건설공제조합·NICE그룹 건설사업자 금융지원 MOU

건설업 전자어음 할인 중개 플랫폼 'CG NICE' 오픈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목)은 금융서비스 향상을 통한 건설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NICE그룹과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NICE비즈니스플랫폼(대표 최정환)과 '건설업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 유동화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또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업자(하수급인)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 전자어음 할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인 '씨지나이스'(CG NICE)를 오픈했다.

중소 건설사업자들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지 못해 높은 금리에도 대부분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합과 NICE그룹은 지난해부터 사업을 구상해 시증보다 낮은 금리로 전자어음을 할인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의 개발을 준비해왔다. 어음발행인의 신용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어음 할인율은 최저 연 4%, 평균 연 6~7% 수준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증은행보다 낮은 할인율도 가능하다.

씨지나이스는 종합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전자어음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할인한다. 조합은 해당 공사 현장에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씨지나이스 투자자의 투자 위험이 낮아 투자자 유인이 매우 용이하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자의 어음할인 수요를 맞추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씨지나이스는 전자어음 할인 외에도, 중소 건설사업자 자금 조달의 한 축을 이루는 외상매출채권도 유동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점차 제공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자어음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하수급인이 씨지나이스에서 할인할 경우 시증보다 저렴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절감돼 운전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어음할인이 원활해지면 조합원의 대금 지급 편의성이 향상돼 하수급인의 일시적 자금경색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씨지나이스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핀테크 기반의 금융서비스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인 혁신적인 분야다. 조합은 씨지나이스를 통해 건설금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ICE비즈니스플랫폼은 NICE의 지주회사인 NICE홀딩스(주)가 지난해 설립한 핀테크 기반의 신규계열사로,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